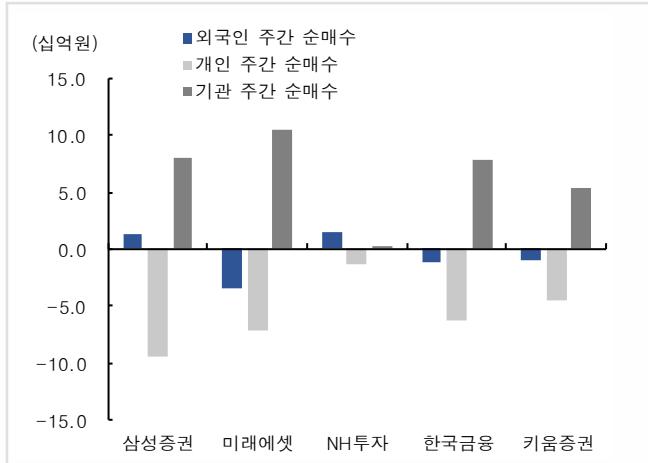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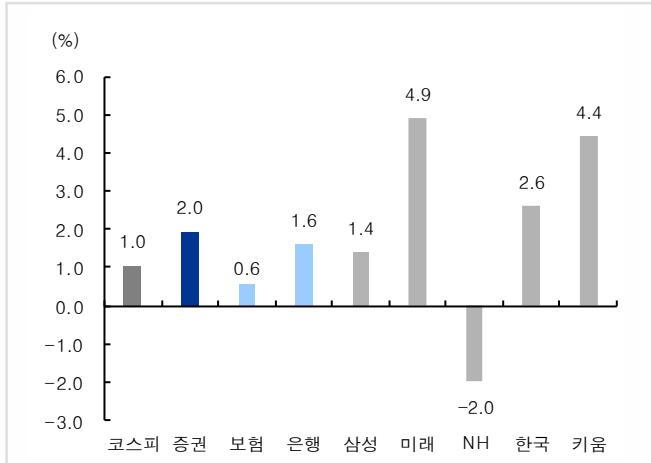




### 주간 수익률&수급 (12.11~12.14)



### 업종 코멘트

- 금주 증권업종 수익률은 +2.0%로 코스피 수익률 +1.0% 대비 1.0%p 상회하였음. 금융업종 내에서는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개별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의 하락세가 컸는데 이는 NH투자증권이 14일 결산배당일을 변경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투자자별 순매수는 기관은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순매수함
- 주초부터 일평균거래대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주 일평균거래대금은 18.3조원으로 전주 대비 10.7% 증가하였음. 특히 14일 반도체 기업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며 일평균거래대금은 24.3조원을 기록
- 금주는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공여 모두 소폭 반등하였음.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공여 잔액은 금주 각각 4.1%, 0.3%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는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에 기인. 금주는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증권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은 13.85%로 2분기 17.28% 대비 3.43%p 감소하였음. 이는 증권사들이 연체된 부동산PF 대출을 상각하거나 부동산PF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연체율의 감소는 긍정적이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동산PF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됨

### Weekly 주요 뉴스

#### ● 부동산PF 연체율 9개월새 2배… “부실 제거 시급” <12.12 / 동아일보>

-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 3분기(7~9월) 말 기준 2.42%로 집계됨. 2분기 2.17% 대비 0.25%p 상승
- 금융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을 상승 폭이 가장 커짐. 증권사 연체율은 13.85%로 2분기 17.28% 대비 감소

#### ● PF사업장 120곳 경·공매 진행…이복현 “부동산 부진 장기화 대비해야” <12.14 / 헤럴드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재구조화를 병행할 것을 주문
-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공매가 진행·예정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개, 6월 말 100개에서 9월 말 120개로 증가

#### ● NH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예정 <12.14 / 뉴시스>

- NH투자증권은 이번 회기부터 결산배당일을 변경한다고 14일 공시
- NH투자증권은 올해 결산 배당기준일은 12월 말일 기준이 아닌 내년 3월 초에 별도 공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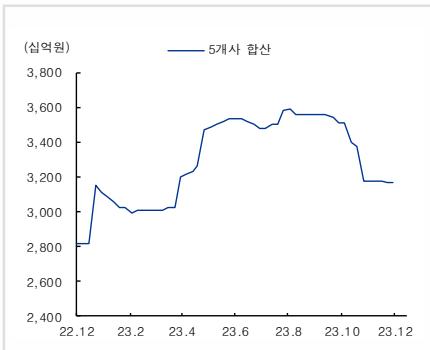
## 증권 Peer Table

구분	종가 (pt, 원)	시가총액 (조원)	주가 변동률 (%)					2023F			2024F		
			1W	1M	3M	6M	YTD	P/B	P/E	ROE	P/B	P/E	ROE
KOSPI	2,544	1,969	1.0	4.6	-2.2	-3.1	13.8	0.94	15.85	6.1	0.87	10.33	8.8
KRX증권	664	20.5	2.0	3.7	3.7	7.8	19.5	0.44	5.46	8.4	0.41	4.93	8.7
KRX보험	1,643	41.4	0.6	1.5	-4.8	10.1	15.6	0.41	4.78	11.1	0.39	4.52	8.9
KRX은행	658	90.8	1.6	3.3	-1.5	7.4	8.5	0.39	4.26	9.4	0.36	4.06	9.2
삼성증권	40,100	3.6	1.4	4.0	3.0	10.3	27.5	0.54	5.40	10.3	0.50	5.33	9.7
미래에셋증권	7,510	4.5	4.9	1.2	7.4	2.6	23.5	0.40	9.80	5.4	0.39	8.61	5.7
NH투자증권	10,280	3.4	-2.0	-0.1	-1.9	5.8	17.2	0.48	6.24	7.8	0.45	5.98	7.8
한국금융지주	63,100	3.5	2.6	8.2	11.7	14.5	18.4	0.44	4.47	10.8	0.41	4.40	10.1
키움증권	96,700	2.5	4.4	4.7	-6.9	6.0	15.1	0.54	5.94	10.0	0.48	3.98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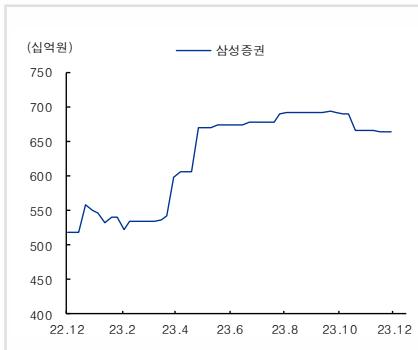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

### 커버리지 5개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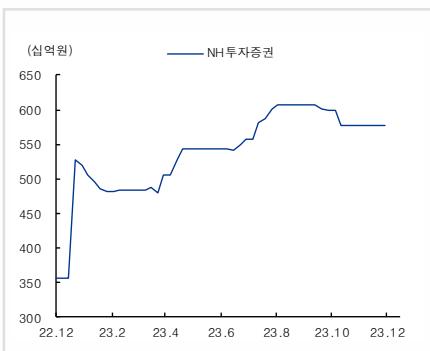
###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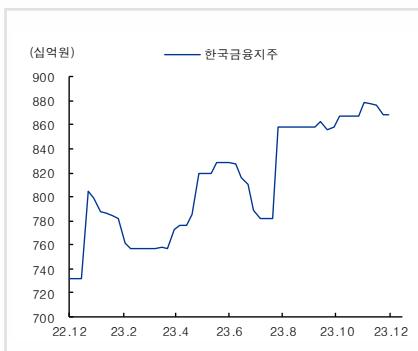
###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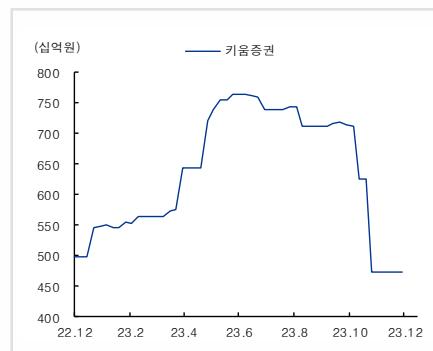
### NH투자증권



### 한국금융지주



### 키움증권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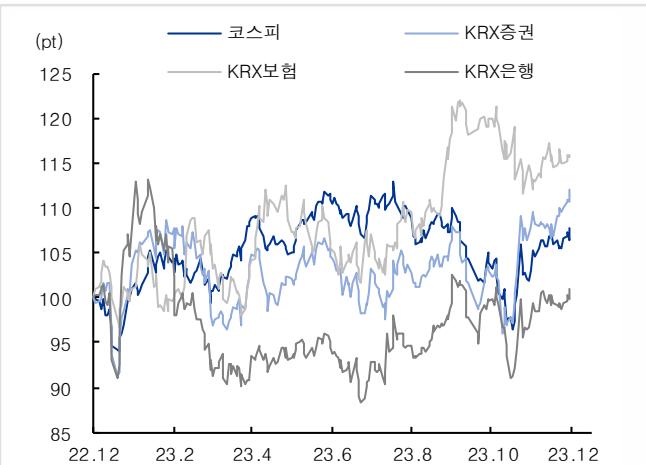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요 차트

### 금융업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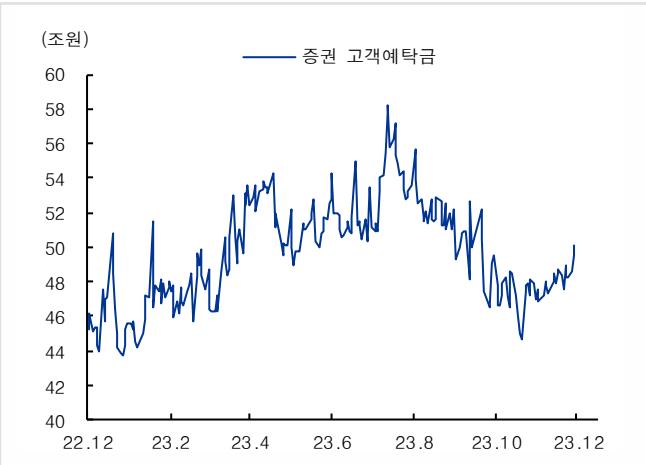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 금리 추이: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지속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 고객예탁금 전주 대비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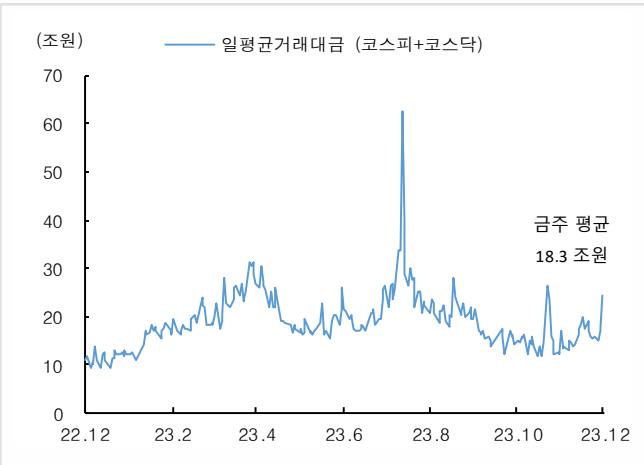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금융투자협회, IBK투자증권

### 커버리지 증권사 주가 추이



### 거래대금: 전주 평균 대비 10.7% 증가



금주 평균  
18.3 조원

### 신용공여 전주 대비 0.3% 증가

